

2013 년 5 월 UN-NGO 소식지



이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모델

이주민 활동을 하면서 계속 되는 염려 중의 하나는 정착 국가 안에서 이주민 어린이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NGO 들이 주 정부와 지역 교육 시스템 과 협력하여 이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교육자들은 좀 더 이주민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배우며 활기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한다. 두 이주민 학생인 12 살 로사리오와 대학졸업생인 자미나는 크리스티나 이고아 박사가 사용한 방법이 효과적이었음을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학생 문화와 그들의 속도를 존중했으며 그들을 고립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배움과 직업에 대한 열정과 흥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로사리오는 “난 내가 자라서 암 연구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해요”라고 말한다.

<이주민에 관한 심층 대화>를 위한 계속적인 준비작업

2006 년 이주민과 개발에 관한 심층 대화의 후속작업으로 올 10 월 3 일부터 4 일까지 고위 정부관계자들, 유엔 담당자 그리고 비정부기구들 간의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들, 중간 경유 국가들 그리고 목적지가 되는 국가들이 적합한 이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향후 몇 년 간의 전 지구적 노력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시민 사회가 제안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개발 산업을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규제한다..
2. 분쟁, 자연재해, 그 외 다른 여러 사항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정한다
3. 이민에 관한 문제를 향후 2015 년 개발 의제에 포함시키고 이주민 파견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에 이주민들의 기여를 알리며 개발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나은 계획들을 마련한다
4. 좋은 사례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가족 재결합과 사회복지와 같은 이슈들에 응답하기 위해 좀더 현실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을 재정한다.
5. 강제 노동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없애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6. 모든 이주민 정책에 있어 여성과 아동들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킬 이슈들을 제시한다.
7. 이민과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글로벌 이민 그룹, 국제노동기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2013 년 6 월 25 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의 회의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는 지역회의를 위해 여러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un.org/esa/population/migration/hlmimd2013/highlevelmim2013.htm>

www.sndatun.wordpress.com 그리고 <http://tinyurl.com/3ccygc3>

여성지위 위원회 이후의 후속작업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여러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관련 문서를 만든 후 이 문서에 핵심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두 번의 미팅에서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 모잠비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소녀들과 함께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관련 문제에서의 여학생 차별, 학교 안 혹은 등하굣길에서의 소녀들에 대한 폭력, 강간, 소녀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자존감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정기 총회 68 회기- 가사노동에 얹매인 소녀들

매 2년 마다 정기 총회의 제 3 위원회는 소녀들의 권리 결의안을 후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결의안의 교섭 담당자는 모잠비크, 탄자니아 같은 남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배출된다. 올해 정기총회는 가사노동에 얹매인 어린들에게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낼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유니세프를 위해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직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겪은 사례들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특별히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되어 나머지 가족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많은 어린이들 혹은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녀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여성 조사위원회의 모델에서 배우듯이 소녀들을 위한 작업 그룹은 소녀들을 위한 특별히 폭력의 문제에 관한 발표회를 만들기를 원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보고서들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활동가들이 어떤 것들을 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다.

염산테러, 학교에 갈 권리, 소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내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 가족 분규 해소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강간 등이 그것이다.

이 조사위원회는 지역 단위, 국가 단위 혹은 극제적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소녀들은 청중들과 평가단 앞에서 증언한다. 57차 여성지위위원회가 후원하는 첫 조사위원회 동안 핀란드, 엘살바도르, 멕시코, 미국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소녀 활동가들은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폭력의 경험- 따돌림, 폭력 조직과 관련된 성적 학대, 대중매체 안에서의 여성들의 상품화 등-을 나누었다.

그들은 또한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의 동료, 교사, 공동체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과정에서의 자신들 했던 역할들에 대해 나누었다.

유니세프, 나이아로비 대학에서 온 학생 활동가, 요르단 왕족의 멤버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들은 이 소녀들을 격려했고, 토론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